

김기현·이만희·이인선·김형동·유영하·이달희·조정훈

여당 APEC 특위에 지역의원 5명

김기현 위원장, 간사 이만희
임이자는 기후특위 간사에

국민의힘이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25일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러 경륜이 있는 5선의 김기현 의원을 APEC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APEC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김기현 의원 선임 배경을 놓고는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김석기 의원(경주)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임하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PEC 특위 간사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위원직은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김형동(안동예천),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이달희(비례), 조정훈 의원이 배치됐다.

여권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기후특위 인선도 함께 발표했다. 연금개혁 특위와 기후특위에서 국민의힘 몫 위원 자리는 각각 5석, 7석이다.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윤영석 의원이 내정됐다. 여당 간사로는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위원직에는 조선 박수민·김용태·김재섭·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기후특위에는 3선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간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4선의 이현승 의원과 재선 조은희·서범수 의원, 조선 김소희·조지연(경산)·김용태 의원이 합류했다.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